

# 여성 청년 28%만 '결혼 긍정'...청년 80% 비혼 동거 동의

통계청, '사회조사'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
결혼 않는 이유 결혼자금 부족·필요성 못느낌  
85.5% 가사 공평히 분담해야...실제는 41.3%  
가족·정부·사회 함께 부모 노후 책임져야 60.3%

지난해 19~34세 청년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10년전보다 20%포인트(p) 이상 감소한 36%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미혼 여성의 인식은 28%에 그쳤다.  
청년 80%는 비혼 동거에 동의하고 40%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.

### ◆'결혼 긍정' 청년 36.4% 그쳐...네 명 중 한 명은 결혼 없이 자녀 출산 가능

지난 8월 28일 통계청 '사회조사'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(56.5%)보다 20.1%p 감소한 36.4%이었다. 이는 전체 인구(50.0%)보다도 13.6%p 낮은 수준이다.

성별로 보면 남자는 43.8%, 여자는 28.0%로 여자가 남자보다 15.8%p 낮았다. 남녀 각각은 10년 전보다 22.3%p, 18.9%p 감소했다.

청년들이 생각하는 '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'는 결혼자금 부족(33.7%),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낌(17.3%) 순이었다.

성별로 보면 미혼 남자는 결혼자금 부족(40.9%)이 가장 많으며 미혼 여자는 결혼자금 부족(26.4%), 결혼 필요성 못느낌(23.7%)이 절반을 차지했다.

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80.9%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53.5%이며 2018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.

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(29.8%)보다 9.8%p 증가해 지난해 39.6%에 이르렀다.

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청년 중 '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'고 응답한 비중(57.6%)이 '필요 없다'고 응답한 비중(42.4%)보다 높았다.

입양의사가 있는 청년은 10년 전(52.0%)보다는 20.5%p 줄어든 31.5%였다. 국제결혼에 대해 청년의 83.3%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10년 전(73.8%)보다는 9.5%p 증가했다.

### ◆청년 84.4% 가사 공평히 분담해야...60.7% 가족·정부·사회가 부모님 노후 책임

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(59.7%)보다 24.7%p 늘어난 84.4%를 기록했다. 다만 실제로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청년의 비중은 41.3%에 그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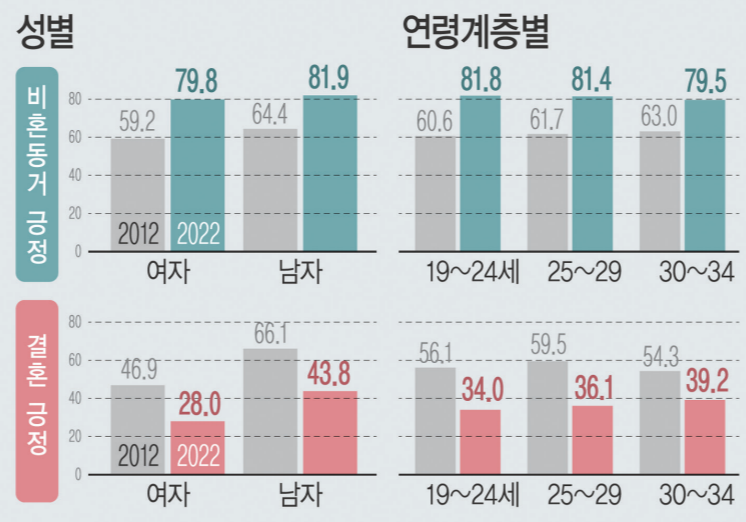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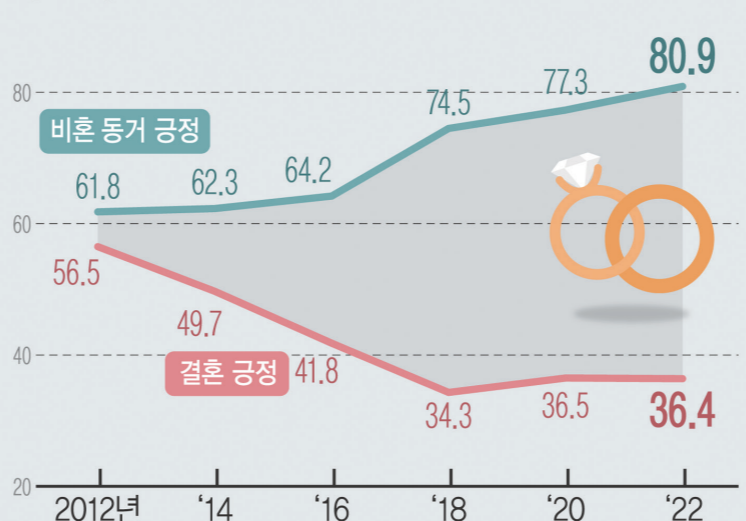
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여자가 13.6%p로 남자(9.0%p)보다 컸다.

재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4.7%로 10년 전(18.5%)보다 13.8%p 감소했다.

지난해 가족·정부·사회가 함께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60.7%로 10년 전(52.3%)보다 8.4%p 증가했다.

부모님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남자

### 청년층의 결혼·비혼에 대한 의식 단위: %



자료: 통계청

(28.4%)가 미혼 여자(16.3%)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. 반면 가족·정부·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여자(66.3%)가 미혼 남자(53.7%) 상대적으로 높았다.

부모님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미혼 청년(22.9%)이 배우자가 있는 청년(17.9%)보다 5.0%p 높았다.

### ◆여성취업 장애 46.3% 육아부담...남자는 '일'·여자는 '균형' 우선

지난 2021년 청년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(46.3%), 사회적 편견(18.5%), 불평등한 근로 여건(13.8%)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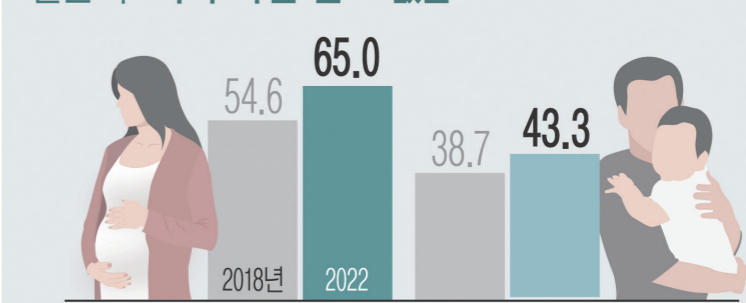
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87.4%로 전체 인구(85.2%)보다 소폭 높았다.

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가사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10년 전보다 20.8%p 증가한 74.0%였다.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9.6%p 감소한 14.1%였다.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청년의 비중은 45.4%이며, 일이 우선인 청년은 33.7%, 가정생활이 우선인 청년은 20.9%를 차지했다.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비중과 가정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이 우선인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. 다만 성별로 보면 남자는 일을 우선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5.9%, 여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8.0%로 상대적으로 높았다.

### 청년층의 결혼·출산에 대한 의식 단위: %



### 결혼 후 자녀 가질 필요 없음



자료: 통계청

다.

지난 2021년 청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(35.8%), 안정성(22.1%), 적성·흥미(19.1%), 근무환경(9.8%) 순이다.

19~24세 청년은 25~34세 청년과 달리 직업 선택 시 안정성(19.9%)보다 적성·흥미(24.2%)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.

10년 전 청년의 선호 직장은 국가기관(27.7%), 대기업(19.6%), 공기업(19.3%) 순이나 2021년에는 공기업(23.2%), 국가기관(20.8%), 대기업(20.2%) 순으로 나타났다.

지난 10년간 국가기관 선호도는 감소세, 공기업 선호도는 증가세를 보였다. 2017년 이후에는 대기업 선호도가 증가세를 보였다.

청년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35.8%로 10년 전(26.0%)보다 9.8%p 증가했다. 각 근로 여건별로도 10년 전보다 만족도가 증가했다.

뉴스

호남신문 i-honam.com	대표전화 (062) 229-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
발행인·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	
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(061) 905-2011	
기사제보 (062) 222-2580 광고직통 (062) 228-2580 팩스 (062) 222-5547	
등록번호 광주가 00021 (일간) / 1946년 4월 창간 / 구독료 월 10,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	
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.	

##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

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.  
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  
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.

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.  
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.  
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 
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.

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활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 
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 
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.  
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.

